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1년 2월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논문

시각장애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장애정체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김혜숙

시각장애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장애정체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ir Perceived Career Barriers and
Disability Identity of University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on Thei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2021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김 혜 숙

시각장애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장애정체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영 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김 혜 숙

김혜숙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정 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허 유 성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영 일	인

2020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표 목 차	iii
ABSTRACT	iv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3
3. 용어 정의	4
II. 이론적 배경	5
1. 진로장벽	5
2. 장애정체감	10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7
4. 선행연구 고찰	20
III. 연구 방법	25
1. 연구 참여자	25
2. 연구 도구	26
3. 연구 절차	29
4. 자료 처리	30
IV. 연구 결과	31

1. 시각장애대학생의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	31
2. 시각장애대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 비교	32
3. 시각장애대학생의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 상관관계	39
4. 시각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진로장벽 및 장애정체감의 영향력	41
V. 논의	44
VI. 결론 및 제언	48
1. 결론	48
2. 제언	49
참 고 문 헌	51
부 록	61

표목차

<표 II-1> 진로장벽 구성요소	9
<표 II-2> 장애정체감 발달단계 5단계 모델	13
<표 II-3> 장애정체감의 구성요소	15
<표 III-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26
<표 III-2> 진로장벽척도 하위요인별 신뢰도	27
<표 III-3> 장애정체감척도 하위요인별 신뢰도	28
<표 III-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요인별 신뢰도	29
<표 IV-1>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기술통계량	31
<표 IV-2> 성별에 따른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차이	33
<표 IV-3> 전공에 따른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차이	34
<표 IV-4> 학년에 따른 다른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차이 ..	36
<표 IV-5> 읽기·쓰기 매체에 따른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차이	38
<표 IV-6>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39
<표 IV-7> 진로장벽 하위요인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40
<표 IV-8> 장애정체감 하위요인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41
<표 IV-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진로장벽과 장애정체감의 회귀분석	42
<표 IV-1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진로장벽 하위요인의 회귀분석	42
<표 IV-1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장애정체감 하위요인의 회귀분석	43

ABSTRACT

The Effects of Their Perceived Career Barriers and Disability Identity of University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on Thei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im, Hye-suk

Advisor: Prof. Young-il Kim, Ed.D.

Major in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ir perceived career barriers and disability identity of university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on thei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 total of 64 student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consisting of basic information, Career Barrier Scale, Disability Identity Scal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Their response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t tests or analysis of variance,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career barriers of visually impaired university studen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nly in their majors, but the level of career barriers of non-teacher university stu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teaching university students. Gender, grade, and learning media showed similar levels of career barriers.

Second, the level of disability identity of visually impaired university student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major, and learning media, bu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only in grade

level. The disability identity was highest in the first grade with an average of 3.35 points, followed by an average of 3.08 points for the third grade, 2.95 points for the second grade, and 2.92 points for the fourth grade.

Thir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ccording to background variables of visually impaired university students in majors and grades. As for the goal selection, the average of the teachers' university was 3.43 points, higher than the average of 3.15 points for the non-instruction university,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and the self-assessment was higher than the average 3.20 points for the non-instruction universities. In addition, self-assessment was highest in the first grade with an average of 3.56 points, followed by an average of 3.26 points for the third grade, 3.20 points for the second grade, and 3.17 points for the fourth grade, show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Fourth, the results of analyzing career barriers and disability identity factors that affec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re as follows. Firs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information shortage and future anxiety, which are the sub-factors of career barriers, and conflicts with important others. Looking at the relative influence of each variable on career-decision self-efficacy, career barriers was found to have no effect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Nex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human values and civil rights, which are sub-factors of disability identity. Looking at the relative influence of each variable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he value of disability identity as human beings. Only career decision-making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elf-efficacy.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장애학생이나 비장애학생 모두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정하고 진로목표를 성취하는 일은 개인적 차원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대학생 시기는 진로 발달 단계의 진로 확립기 또는 현실기에 해당하여 직업 배치기에 속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진로와 직업을 결정하는 시기이다(장경문, 2005). 취업을 앞두고 있는 시각장애대학생도 자신의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선택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시각장애대학생의 진로는 단순히 특정 직업 선택만이 아닌 삶의 목표와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김대룡, 신현기, 2011) 삶의 질적 측면을 의미 있게 고려해야 한다.

장애대학생 수는 특수교육대상자 특별 전형 제도를 시행한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466개 대학에 9103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매년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교육부, 2017a). 이 제도는 장애대학생의 교육권 보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박량은, 박재국, 서보순, 조현진, 2016). 하지만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이 취업률 증가와 양질의 고용기회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이석원, 정술, 2016).

장애대학생의 대학진학률이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성취를 넘어 대학의 성과적 요소로 이들의 취업과 진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김정은, 2014). 이러한 추세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계획(2018~2022)”의 핵심 추진과제로 대학 내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장애대학생을 위한 진로·취업교육 지원의 다양화를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7b). 장애대학생이 경제적 자립과 행복한 직업인으로서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진로발달을 돕는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실제 장애대학생은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장애로 인한

여러 가지 제약과 장애인의 사회적 편견, 취업정보 부족, 취업시험 준비의 어려움 등 사회적 요인으로 취업에서 어려움이 있다(김선중, 2005; 정세영, 박재국, 2013). 또한 장애대학생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의 확신, 정보, 직업 또는 진로방향, 직업준비 적절성, 직업수행능력 등에 대한 자기확신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효현, 2006; 이정애, 최응용, 2010). 진로선택과 결정에서 이러한 정서적 요인은 사회적 요인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Kidd, 1998). 정서적인 측면은 진로를 준비하고 선택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고 진로에 대한 어려움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진로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념이 필요한데 이것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이는 인간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 적합해서 Hactt와 Betz(1981)는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에 적용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개념화 하였다. 즉 진로와 관련된 행동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의미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과 진로의사결정 등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진로준비 행동을 더욱 활발히 하는 경향이 있다(이명숙, 200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진로장벽이 있다. 진로장벽은 진로를 준비하고 선택하는 데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설명해주는 개념이다(박경숙, 2013). 진로장벽은 진로계획이나 직업에서 자신의 진로목표의 실현을 방해 또는 가로막는 내적·외적 요인이며(정홍원, 2002), 진학이나 취업, 승진, 직무수행에 있어 개인의 목표, 포부, 동기, 진로선택 등에 영향을 주거나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부정적인 사건이 포함된다(손은령, 2002). 개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내용과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진로선택 및 진로결정이 달라질 수 있고 장애대학생의 다양한 스트레스는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이정민, 2010).

대학생은 발달단계상 청년기에 속하며 심리적 발달과업으로 자아정체감 발달이

중요한 시기이다. 자아정체감을 통해서 자신의 신념, 존재방식, 역할 등을 결정하게 된다. 장애대학생은 장애인만이 가지는 장애정체감 형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장애정체감은 장애인만이 가질 수 있는 장애 및 장애인의 삶의 태도와 이를 받아들이는 정도이고(이익섭, 신은경, 2006), 장애인 사회참여(신은경, 2007), 장애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이용 외, 2011)등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Putnam(2001)은 장애학생의 손상정도가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장애정체감수준이 높게 나왔고, Shur(1998)는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성별에 따라 장애정체감 각 차원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었다(신유리·김정석·허준기, 2018, 재인용). 이 연구에서도 시각장애대학생이 배경변인인 장애정도, 연령, 학년, 성별, 전공분야, 학습매체에 따라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자기결정 진로효능감의 수준이 다를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인으로 진로장벽과 장애정체감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시각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이 무엇이고, 진로장벽과 장애정체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고, 그 하위요인은 무엇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이 연구는 시각장애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시각장애대학생의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시각장애대학생의 성별, 전공, 학년 및 학습매체에 따라 진로장벽, 장애정

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있는가?

셋째, 시각장애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넷째, 시각장애대학생의 진로장벽 및 장애정체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3. 용어 정의

진로장벽 이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진로장벽

진로장벽(career barriers)이란 진로계획이나 직업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진로목표 실현에 방해가 되거나 가로막는 외·내적 요인(손은령, 2001)이다. 이 연구에서는 시각장애대학생의 진로와 취업 준비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선택, 동기나 목표에 영향을 주거나 역할 행동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개인이 인지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으로 정의한다.

② 장애정체감

장애정체감(disability identity)은 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장애와 장애인의 삶에 대한 태도이다. 장애정체감은 자신에 대해 갖는 감정, 인식 등과 같은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가지는 개별적인 태도 및 전 생애에 걸친 장애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겪는 경험들을 통합하여 자신에 대해 내리는 정의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정체감을 인간으로서의 가치, 공통근거, 시민적 권리, 외적 장애물에 관한 인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이익섭, 신은경, 2006).

③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이란 진로관련 목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의 정도를 의미하는 자기효능감이 진로의사결정과 직업적 성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2001, 정진선). 이 연구에서는 시각장애대학생 개인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 및 유능함으로 정의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진로장벽

1) 진로장벽의 개념

진로장벽의 개념은 Crites(1969)가 직장적응을 어렵게 하고 진로발달 과정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방해 조건’이라고 명칭 하면서 논의되기 시작되었다(Crites, 1969: 강연정, 2018, 재인용, p. 16). 진로장벽에 대한 논의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진로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이라는 개념을 다른 대상으로도 확장해 사용하고 있다(김은영, 2001).

진로장벽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다. Fassinger와 Fitzgerald 그리고 Betz(1995)는 ‘장벽’(barriers) 혹은 ‘지각된 장벽’으로 명명하였고, Luzzo(1997)는 ‘진로와 관련된 장벽’으로 정의하였다. Swanson과 Tokar(1991b)에 의해 진로장벽 검사(CBI: Career Barriers Inventory)가 개발되고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진로장벽”으로 사용되고 있다(손은령, 2001). 이 연구에서는 다양하

게 명명된 개념 가운데 진로장벽으로 사용하였다.

진로장벽은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명명된 것처럼 다양한 개념 정의가 제시되었다. 우선 진로장벽을 진로발달의 방해요인이라 정의한 학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aniels과 Swanson(1995)은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CBI-R) 검사에서 직업 또는 진로계획상의 진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진로장벽의 환경적인 외적장벽과 심리적인 내적장벽을 설명하였다. Gottfredson(1981)은 진로장벽이 진로목표와 진로계획의 실현 및 진로발달의 방해요인이라 하였다. 또한 Tak와 Lee(2003)는 미래 진로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 하였다. 윤현희(2008)에 따르면 진로장벽은 직업이나 진로계획에 있어 자신의 진로목표 성취를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외적·내적 요인으로 정의하였고, 외적장벽은 주로 환경적인 측면의 장벽이며 내적장벽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발견될 수 있는 장벽들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성식(2007)의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이란 진로와 관련된 여러 경험들, 진학, 취업, 승진, 직업의 지속, 직장생활과 가사의 병행, 직무행동 등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선택, 동기, 목표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행동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이나 상황으로 통칭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문정과 박봉길(2014)도 진로장벽을 진로선택 과정에서 진로목표나 선택으로 연결되기 어렵게 만드는 근접맥락 변인으로 보고 있다.

진로장벽을 진로발달 방해요인이라 개념 정의한 학자와 달리, 방해할 것이라 지각된 부정적 개인·환경 조건으로 정의한 연구자들이 있다. Swanson과 Woitke(1997)는 진로장벽을 개인 내적 심리 상태나 환경 속에서 진로발달을 어렵게 하는 개인 내 혹은 환경 내의 조건이라 하였다. 국내 연구자를 살펴보면 김종운과 박성실(2011)은 진로장벽이란 개인의 진로발달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적이고 환경적인 조건이나 사건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개인이 진로와 연관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겪어나가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 사건이나 사태라고도 하였다(김종운, 박성실, 2011).

그러나 앞선 연구자들과 다르게 진로장벽은 반드시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London(1997)은 진로장벽에 대한 정서·인지적 반응과 대처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정의했다. 진로장벽이 개인의 심리상태, 직무환경 또는 이 둘의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이러한 진로장벽에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진로장벽은 상실, 불리, 갈등, 변화, 증가하는 기대나 직무요구 사항, 저고용, 우호적이지 않은 수행평가, 차별, 긍정적 사건의 부정적 측면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는 진로장벽을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으로 보았다. 또한 진로장벽이 개인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서적 영향이 다양하고 이러한 장벽에 대처한다는 것 자체가 불안, 공포, 우울과 같은 강한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는 사건임을 지적하고, 진로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실제 존재하는 진로장벽이 아니라 개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다. 즉 진로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실제적 사실이나 상황보다는 개인이 이러한 상황이나 사실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진로장벽이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라는 것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정보처리, 역기능적 비합리적 신념, 인지왜곡 등으로 인한 내담자의 지각된 진로장벽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기보다는 인지 재구조화를 통하여 장벽요인에 대한 시각을 수정함으로써 진로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김선중, 2005). Luzzo(1997)는 진로발달과 진로장벽의 지각이 반드시 부적 상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진로장벽을 측정하는 하위차원 또한 연구자별로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초기에 Crites, O'leaty, Farmer들은 진로장벽을 개인 내부 심리적 요인과 외부 환경적 요인 두 유형으로 구분한 이분법적 분류를 하였다. Crites(1969)는 직장적응을 힘들게 하는 방해조건을 진로장벽으로 인식하면서 성취동기나 자아개념 같은 내적 갈등과 임금이나 작업장의 차별 등의 외적 좌절의 이분법적 분류로 구별했다.

둘째, 이분법적 분류가 진로장벽을 단순하게 유목화하고 내부 심리적 요인과 외부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적인 측면을 수용할 수 없는 맹점을 보완해서 포괄할 수 있는 측면을 Swanson과 Tokar에 의해서 삼분법적 분류가 제안되었다. 전공선택이나 학위 취득 시 지각되는 태도장애(흥미, 내적인 자아개념, 직업에 대한 태도), 진로와 가사활동의 조화 시 지각되는 것으로 사회적·대인적 장애(가족, 결혼, 가족계획)에 상호작용적 장애를 추가해 분류하였다(Swanson & Tokar, 1991a: 이민옥, 2018, 재인용, p. 7).

셋째, 이분법 및 삼분법적 분류체계에서 벗어나 생활장면이나 실제현장에서 지각되는 진로장벽을 조사하고 유목화한 다원적인 분류체계가 시도되었다.

진로 발달과정에서 진로장벽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초기에는 진로장벽을 환경적 측면의 외적 장벽과 심리적 측면의 내적 장벽으로 이분법적 분류를 하였지만 개인의 복잡한 진로장벽 요인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최근에는 진로장벽을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삼분법과 다원분류체계로 하고 있다(김동숙, 2011).

Tokar와 Swanson(1991b)는 진로장벽검사(CBI)를 18개 하위 척도로 개발하여 그 후 개정판을 거쳐 13개 하위 척도로 구분하였다. 그 하위 척도로 성차별, 여러 가지 역할들의 갈등, 자신감 부족, 자녀와 진로간의 갈등, 인종차별, 관계망 만들기·사회화의 어려움, 노동시장의 제약, 신체장애 및 건강상의 문제, 의사결정의 어려움, 중요한 타인들의 반대, 진로에 대한 불만, 비전통적 진로선택 문제, 부적절한 준비가 있다.

손은령(2001)은 진로과업 및 진로발달 단계에 따라 지각되는 진로장벽의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직업준비와 직업선택은 진로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한 진로장벽 내용과 7개 요인인 차별, 직장생활에서 요구되는 미결정 및 직업준비 부족, 다중 역할로 인한 갈등, 개인적 특성의 부족, 기대보다 낮은 직업전망,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등 여성 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진로장벽검사를 개발하였다.

김은영(2001)이 개발한 대학생용 진로장벽 검사를 김원호, 김동일(2011)은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6개의 척도로 구성하였다. 6개의 하위차원은 장애

관련요인, 진로정보 부족과 미래불안, 자기명확성 부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나이문제로 구성하였다. 진로장벽의 하위차원을 제시하면 <표Ⅱ-1>과 같와같이 재 구성하여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표 Ⅱ-1> 진로장벽 구성요소

하위차원	개념
장애관련 요인	신체적 장애로 기인한 진로발달문제 간의 장벽요소 및 장애특성 수준에 의한 진로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기명확성 부족	자기 자신의 이해와 장단점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문제로 인해 진로계획이나 진로선택을 하는 데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정도
진로정보 부족과 미래불안	진로결정 과정과 지식, 자신의 정보부족과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 방법 부족정도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부모나 친구 또는 장래 배우자 등이 자신의 진로를 인정하지 않거나 간섭의 어려움, 기대가 커서 겪는 어려움의 정도
나이문제	진로에 있어 나이가 적거나 많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의 정도

출처: 김원호·김동일(2011). p.21.에서 재구성.

2) 진로장벽 관련 이론

진로장벽에 관한 대표적 이론을 살펴보면 London(1997)의 진로장벽 대처모델과 Brown, Hackertt와 Lent(1994)가 제시한 사회인지 이론을 들 수 있다. Brown, Hackertt와 Lent에 의하면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개인적, 인지적 변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지원하거나 제약하는 외적, 맥락적 요인도 포함한다. 개인 진로목표 설정과 수행에 영향을 주고, 맥락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인종, 성, 민족, 건강상태, 신체장애 등이 있으며 진로흥미가 진로목표와 진로수행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중재한다는 이론이다.

지각된 진로장벽을 이해하기 위해 Bandura(1982)의 사회인지 이론을 적용한

Lent(1994)의 사회인지모델은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심리적 요소와 환경적, 사회적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제시함으로써 최근 진로관련 장벽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해 준다(김은영, 2001, 재인용)

사회인지모델에 따르면 지각된 진로장벽은 진로선택이나 진로실행 과정에 영향을 준다. 개인 진로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인적, 인지적 변인들과 함께 개인을 지원해주거나 제약하는 개인 외적요인들을 강조하고 있다. 외적요인들이 진로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객관적 요인에 대한 조건자체보다는 개인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주관적 지각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하였다.

London(1997)은 직면한 진로 장벽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진로발달을 진전시키는 역량을 키울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진로발달에 방해에 되기도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즉 여성에 있어서 진로장벽을 적절히 인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진로발달을 적극적으로 하여 진로발달을 돕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이 연구는 London(1997)의 진로장벽 대처모델과 Brown, Lent와 Hackertt(1994)가 제시한 사회인지이론에 바탕을 두고 살펴 보고자 한다.

2. 장애정체감

1) 장애정체감의 개념

장애정체감에 대한 개념은 Erikson(1968)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과 Sue & Sue(1999)의 ‘소수인종집단 정체감 모델’를 근거로 하여 발전되었다. 그 결과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의 주요 개념인 자아정체감의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인간에게 한 평생 살면서 주어지는 동등한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은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일 것이다. 이것은 자아정체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자아정체감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자기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주변인으로부터 반영되는 종합적인 자기 모습들의 복합체이다 (Dignam, 1965).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모습으로 ‘장애’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자아정체감 형성에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개인이 갖는 다양한 자아정체감 중에서 장애인인 경우는 장애정체감이라는 또 하나의 자신을 의미하는 정체감이 존재하는 것이다(전지혜, 2011).

장애정체감이란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장애인 됨의 특성을 인식하는 것을 장애인만이 느낄 수 있는 장애 및 장애인의 삶에 대한 태도와 장애를 심리적으로 이해하는 정도이고 장애정체감을 갖는다는 것은 장애를 수용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이익섭, 신은경, 2006). 또한 장애인이 인식하는 자아상 또는 장애 집단의식, 그리고 장애인 사회통합에 관한 사회적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장애정체감이라고 정의하였다.

장애정체감은 심리적 차원에서 장애 수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수용은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장애로 인해 자신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지 않으며 장애를 감추기 위한 열등감과 긴장으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는 상태이다(문주영, 2013). 최근에는 장애수용을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손상과 장애를 개인이 받아들이는 내적 인식으로 정의되며, 장애인의 삶의 만족과 성공적 사회적응에서 요구되는 주요한 변인으로 보고 있다(김자경, 신보희, 장성욱, 2017).

사회적 차원의 장애정체감은 ‘사회적 모델’를 기반으로 장애가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물질과 사회를 통해 창조된다는 것이다. Hahn(1997)은 장애정체감을 여성, 흑인, 이민자 등 다른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과 유사한 운동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가치 절하 평가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존경과 경의의 긍정

적 원천이라고 보았다. 사회적 차원의 장애정체성을 가진 장애인은 차별을 당했을 때 자존감을 유지하고 억압의 내재화를 피하고자 개인 역량 수준하에 긍정적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장애정체감은 개인적인 동시에 정치적이라고 하였다.

Shur(1998)는 척수손상 장애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을 연구하여 장애정체감의 속성을 알아냈다. ‘사회·정치적 환경에서 유발되는 장애를 사회·정치적으로 소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장애 문제를 다른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것’, 등을 포괄하여 장애정체감의 집단적 속성을 강조하였다. 장애에 대한 차별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정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에 존재하는 장애인 차별과 편견을 법적으로 교정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Hahn, 1987).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 개념의 변화가 필요하고 장애가 동정이나 배제의 대상, 장애를 극복한 영웅 등 왜곡된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의 열등감에서 벗어나 올바른 장애정체성을 확립하고 장애자부심을 가져야 한다(전지혜, 2011). 사회적 차원의 장애정체감은 자아존중감이나 장애수용 같이 자신의 의식 속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장애정체감은 문화적 차원에서 정치적 속성을 지닌 집단적 정체감과 구별하여 있는 그대로 비장애인들과 다른 삶의 양식을 갖는 존재로 장애인 집단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Daring(2013)은 장애정체감이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새로운 장애정체감 유형론을 제안하였다. 장애정체성은 개인이 위치에 있는 맥락의 역할에 따라 정체감이 규정된다는 이론으로서 ‘개인에게 존재하는 장애와 연관된 장애 정의에서 자기 개념의 일부’로 정의하였다. 즉 하나의 정체감이 다른 정체감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했는데, 다른 상호작용 상황에 접하거나 의미 있는 타인과의 교류가 전환점이 되어서 장애정체감이 다른 양상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은 살아가는 동안 장애정체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상황과 접하게 된다. 상실이나 질병, 결혼 등 개인적 경험과 장애인권 운동 이나 다양한 장애집단

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모델을 접하는데 이것은 장애인 개인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 장애정체성은 장애집단과의 물리적 통합 속에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진 장애에 대한 인식과 살아온 경험 그리고 자신의 해석을 통한 개인에 의해 ‘구성’ 된다(문영민, 2016).

이익섭·신은경(2005)은 장애정체감 형성단계를 Sue & Sue(1999)의 소수 인종 집단 정체감 모델을 적용하여 이를 5단계로 <표 II-2>과같이 구성하였다.

<표 II-2> 장애정체감 발달단계 모델

단계		준거집단	비장애인에 대한 시각	장애에 대한 시각	장애공동체에 대한 시각
1단계	순응	비장애인	비장애인의 가치관 선호	병리적	비하
2단계	부조화	장애인/비장애인	선호/저항	병리적 관점/사회적 관점	비하/공감 형성
3단계	저항과 몰입	장애인	분노	사회적 관점	무조건적 긍정
4단계	자기반성	장애인	비장애인의 규범에 대한 긍정성 인정	사회적 관점 자율적 개인에 대한 시각 도출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시각 도출
5단계	통합적 자각	장애인/비 장애인	선택적 존중	사회적 관점 문화적다양 성 개인가치 존중	장애 특성에 따른 이해의 지평확대

출처: 이익섭·신은경(2005). p.516.

첫째, 순응단계는 장애발생 직후 단계이다. 자신의 장애를 병리적으로 의식하고 자기를 포함한 장애공동체를 비하하는 상태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이고 체념적인

순응이 이루어진다.

둘째, 부조화의 단계이다. 장애에 의한 사회적 관점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장애 공동체에 대한 비하와 긍정적인 수용이 공존하며 비장애인에 대해서도 저항과 선호가 오가는 혼란을 겪게 된다.

셋째, 저항과 몰입의 단계이다. 준거집단을 장애인 집단으로 간주하고 장애의 사회모델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배제와 사회적 차별이 장애문제의 핵심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넷째, 자기반성 단계이다. 이는 사회모델의 기본적 관점을 지닌 채로 장애인의 개별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 단계의 장애인은 책임감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자율적인 인간으로 묘사된다.

다섯째, 통합적 자각 단계이다. 이 단계는 온전한 장애수용이 이루어지며 개인 가치와 함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게 된다. 이 단계의 장애인은 온전히 사회에 적응하면서 권리주장에 자유로운 사람으로 묘사된다.

장애정체감은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한 단계를 거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과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다. 각 단계가 같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어떤 장애인은 순차적 단계를 거쳐서 장애정체감을 형성해 나갈 수도 있다. 자신의 장애 때문에 부정적 정서와 심리적 고통, 사회 참여의 제약 및 사회적 차별 등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장애정체성 혼돈을 겪으며 장애로 인해서 새롭게 형성되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을 인식하면서 긍정적인 장애정체감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익섭과 신은경(2006)은 Wright(1980), Gill(1997), Shur(1998), Putnam(2001), Hahn(1997)의 연구를 바탕으로 장애정체감 하위차원을 5개로 개념정리하고 척도로 구성하였다. 5개의 하위차원은 장애수용, 인간으로서 가치, 시민적 권리, 공통근거, 외적 장애물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Rasch모형을 활용한 타당도 검증을 통해 하위차원 간 상관관계가 높고 중복되는 개념인 장애수

용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통합하여 인간으로 가치, 외적 장애물 인식, 공통근거, 권리주장성의 4개의 하위차원으로 재정리하였는데(이익섭·홍세희·신은경, 2007), <표 II-3>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표 II-3> 장애정체감의 구성요소

하위차원	개념
외적 장애물 인식 (external barriers)	장애는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환경속에 존재하며 이러한 장애물은 제거될 수 있다.
인간으로서의 가치 (personal worth)	본인에 대한 수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 사람의 가치는 신체적 능력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권리 주장성 (individual civil rights)	장애로 인한 사회적, 제도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사회적 장벽에 대한 자신의 적극적인 대처반응 및 태도이다.
공통근거 (common cause)	장애경험은 특정 개인만이 경험하는 독특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상태에 있는 대부분 혹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는 믿음이다.

출처: 이익섭·홍세희·신은경(2007). p.278.에서 재구성.

이러한 장애정체감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선행연구가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신은경과 최정아(2007)는 척수손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장애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애정체감은 우울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은 다시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매개효과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2) 장애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김성연 외(2007)의 연구에서 장애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요인, 장애 및 건강요인, 환경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개인요인으로 성별, 학력, 연령, 직업여부, 소득, 배우자 유무 등이 영향을 끼치고, 장애 및 건강요인으로 선천적·후천적 여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지속기간 등이 그리고 환경요인으로 서비스기관 이용, 물리적·사회적·태도적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장애정체감은 개인, 환경, 손상중 어느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환경적 요소는 다른 변인에 비해서 조작이 가능하고 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대학생의 장애정체감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 교육현장에서 동료, 교직원, 교수 등은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정체감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Shakespeare(1996)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장애정체감을 개발하는 데 주된 장애 요소는 장애인이 스스로 열등하다고 사회화되어 왔다는 점을 들었다. 열등감은 부정적 이미지, 분리교육, 긍정적 역할 모델 결여, 문화적 상징,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때문에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상호 간의 집합적인 지지와 힘의 원천으로부터 고립되고 분리되었다는 것이 긍정적 장애정체감 개발에 방해가 되었다고 하였다.

Zola(1993)는 장애인의 부정적인 사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이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강화 및 유지하려는 지지적인 가족이나 공동체 문화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Gill(1997)은 자기결정 요소가 점증적으로 향상될 때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 안에서 긍정적 장애정체감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지지가 장애문제의 정치적 관심을 개발하는 데 중요하므로 자립생활센터나 지지집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그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Galvin(2005)연구에서 자립 수준이 장애인들의 정체감 변화에 명백한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고, 자립 수준은 활동지원서비스 같은 공식적 지원제도의 유무에 영

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시각장애대학생의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또래들과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고, 특히 청소년기 시각장애 학생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장애인은 장애 이외에도 성적, 인종, 문화, 종교 그리고 성적지향 등 다중적인 소수자의 특성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이지수, 2014). 따라서 장애정체감 형성에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므로 장애인의 전 생애과정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개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관련 본인의 목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Hackett & Betz, 198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와 관련된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오은영, 2013; 이은경, 2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개념은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 이론에서 비롯되었다.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은 사회인지이론에 바탕을 둔 개념으로 주어진 과제 혹은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낮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지각된 장애를 극복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가정한다(오은영, 2013; 이은경, 2001).

Hackett와 Betz(1981)는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을 처음으로 진로 분야 연구에 적용하였다. 이들은 자기효능감이 인간행위와 연관된 다양한 심리적, 인지

적 변인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는 사실을 주목하였다. 또한 진로성취와 진로결정 수준에 중요한 인지적 영향을 주고, 진로결정 과정과 진로동기, 진로발달에 자기효능감 기대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정민, 노안영, 2008; Hackett, Betz, 1981).

이후 Betz와 Taylor(1983)는 개인이 진로를 결정할 때 필요한 과업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신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를 개발하면서 과학, 공학, 수학과 같은 특정 진로 영역에 자기효능감이 아닌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의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척도개발을 통해 특정영역을 잘 할 수 있는지 보다 일반적인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개인 자기효능감 기대를 측정하는 도구를 제작하여 진로 전반에 걸쳐 자기효능감을 수량화하고자 하였다(김종운, 박성실, 2011). 그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와 관련된 다른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현주(2000)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한 자신감 또는 유능감이라고 정의 하였다. 또한 전공 또는 직업선택과 같은 진로행동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본인의 능력에 대한 지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전공과 직업탐색 및 선택, 직업준비와 같은 진로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자신의 진로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신념과 유능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구성 요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선택한 목표의 직업적인 과제를 수행하거나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거나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자기평가를 통해 향상된다고 하였다. Bandura(1997)는 장애대학생이 지각하는 낙인 인식과 같은 외부

적 영향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개인효능감 요인을 통하여 개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Bandura(1997)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렵고 복잡한 상황을 조절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이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약하면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때 쉽게 포기하지만, 반대로 특정과제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크면 그 과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행동을 유지하는 시간도 많아지게 된다고 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특정 직업이나 진로선택, 효과적인 의사결정, 지속적인 계획 추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개인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효능감이 낮을 때 그 직업선택을 보류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진, 2001). 자기효능감은 성취행동과 진로와 진로결정 과정에서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직업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변인이다(이은경, 2001), 개인이 진로결정이라는 과업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변인일 뿐만 아니라(Hackett, Letz, 1987), 특정 학문 분야, 전공 및 직업선택, 수학 수행능력, 진로 의사결정, 진로 태도 등과 같은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성공적인 진로결정의 믿음 정도를 측정하는 Betz와 Taylor(1983)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는 Crites(1978)의 CMI(Career Maturity Inventory) 척도 5가지 구성요인을 기초로 개발되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의 구성요인 10개 중 5개를 제거해서 25개 문항으로 단축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의 하위 구성요인은 직업정보 수집, 자기평가, 계획수립, 목표설정과 문제해결 방식이며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평가는 자신의 가치, 욕구, 능력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을 분석할 수 있는 자신감이다. 둘째, 직업정보 수집은 흥미있는 직업을 발견한 후 그 직업에 대한 입직조건을 탐색할 수 있는 자신감이다. 셋째, 계획수립은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신감이다. 넷째, 목표설정은 본인의 학업이나 진로선택을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다섯째,

문제해결방식은 진로경로중 난관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김민정(2007)은 진로결정과 연관된 자기효능감 척도의 요인으로 정보수집, 목표설정, 자기평가, 문제해결, 진로계획으로 구성되어 있고 진로결정 전반에 걸쳐 자기효능감을 수량화하였다. 김수리(2004)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 행동간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4. 선행연구 고찰

1)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장애대학생의 진로장벽 수준에 관한 연구 결과 여성 장애대학생이 남성 장애대학생보다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은, 2014; 이명숙, 2003). 이에 반해 김진윤(2007)과 최현정(2006)의 연구에서는 진로장벽 인식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 유수복과 윤혜미(2014)는 여학생보다 남학생, 저학년보다 고학년, 전문대보다 4년제 대학생인 경우가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모두가 높게 나왔다.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유수복, 윤혜미, 2014).

임통일(2013)은 장애대학생 진로결정에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장애관련 요인은 진로결정에, 가족지지, 심리적 독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보다는 진로준비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장애관련 요인은 진로장벽과 심리적 독립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임통일, 2013).

사회인지이론 등장 이후 진로계획과 진로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방해 또는 진로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진로장벽은 꾸준히 대두된 변인으로 장애대학생에게 장애로 인한 거부의 경험과 사회적 차별을 통해 지각된 낙인 인식은 진로장벽이다. 진로장벽은 개인 진로결정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가져와서 개인 진로 발달에 방해가 되지만(Gottfredson, 1981), 자기효능감은 진로장벽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진로관련 행동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은경, 2001). Hackett와 Bryars(1996)는 강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차별과 같은 장벽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하였다.

이성식과 정철영(2007)은 진로장벽 인식과 진로결정수준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부분적인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진로장벽 요인에 대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탄력적으로 대처해서 진로관련 행동을 수행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Brown과 Lent(1996), 이문정(2013)은 부정적 환경요인, 경험요인과 연관된 진로장벽이 진로의사결정을 할 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낙인 인식과 같은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예측하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박봉길, 2014; 이상희, 2007). 학생들의 진로포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수준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은 진로장벽이고, 진로준비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은 학년이다(손은령, 손진희, 2005).

2) 장애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장애정체감은 손상의 정도와 개인의 접근성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신은경, 2007). 신체적 손상이 경미하고 장애정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미치는 영

향이 적을수록 장애정체감이 높다(이한나, 2008).

장애대학생이 지각하는 장애정체감이 높아지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았다(이문정, 2013). 장애정체감 하위요인 가운데 진로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간으로서 가치 요인이 보고 되었다(김정은, 2014). 엄정혜·양은주(2016)와 이윤경(2010)의 연구에서는 장애정체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애정체감을 발달시킨 사람일수록 진로선택 시 자신감도 높고 자신의 흥미를 고려해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문정과 박봉길(2014)은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장애정체감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3)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인식은 성별로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진로 효능감이 낮다(이명숙, 2003; Williams & Coombs, 1996). 강동진(2005)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효능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김진윤, 2007; 이아라, 2006; 최현정, 2006).

장애정체감은 장애인의 사회·심리적 재활에서 핵심요소로 건강한 장애정체감을 가진 장애인은 자신의 장애와 관련된 어려움을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여기고, 진로선택을 할 때 사회적 맥락 장벽을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진로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엄정혜, 2012). 이순영(2007)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장애정체감은 진로장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현림, 박미경, 김명숙(2008)은 여대생이 지각하는 장애정체감에 따라서 진로장벽을 다르게 인식한다고 하였다. 장애정체감을 높

게 지각한 학생은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여 높은 수준의 진로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문정, 나운환, 2013).

배영광(2013)은 장애대학생의 장애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장벽이 낮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진로장벽이 낮을수록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아졌고, 장애정체성과 낙인의 직접효과가 진로태도성숙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해서 진로태도성숙도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하였다(배영광, 2013).

김민정과 고봉환(2007)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의 46%이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에서 진로계획과 목표설정이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정태준(2018)은 취업준비중인 기혼여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본인의 진로결정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고 필요한 행동을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지각은 미래 행위를 단순히 추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동적이고 인지적인 매개과정으로 행동하는데 영향을 주고,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에 확신을 가질 때 그 상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해 나간다(김선중, 2005)

오은영(2013)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활발히 하고,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을 잘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크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정민과 노안영(2008)은 대학생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장벽에 관한 연구에서 지각된 진로장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 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옥(2011)은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성별, 학년별, 학교별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고미나와 박재황(2012)은 대학생 진로 구조적관계 분석 연구에서 내적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에 유의한 부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실(201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낮게 인식하며, 진로장벽을 낮게 인식할수록 진로결정능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제까지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는 2020년 기준 전국 4년제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시각장애대학생이었다. 한국시각장애대학생연합회를 통하여 이 연구의 목적과 내용 등을 알리고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이 연구의 참여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시하면 <표 III-1>과 같다. 성별을 보면 남학생이 28명(43.8%)이었고 여학생이 36명(56.3%)이었다. 연령은 20-21세가 31명(48.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2-23세 13명(20.3%), 18-19세 12명(18.8%), 24세 이상 8명(12.5%)의 순이었다. 전공분야는 사범계열이 26명(40.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계열 15명(23.4%), 인문계열 13명(20.3%), 예체능계열 7명(10.9%), 종교계열 3명(4.7%)의 순이었다. 학년은 1학년이 19명(29.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학년 16명(25.0%), 2학년 15명(23.4%), 4학년 14명(21.9%)의 순이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시각장애대학생의 장애정도는 심한장애(시각장애 1~3급)이 56명(87.5%)이었고, 심하지 않은 장애(시각장애 4~6급) 8명(12.5%)으로써 대부분 심한 장애이었다. 학습매체는 점자가 35명(5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반문자 26명(40.6%), 음성 3명(4.7%)의 순이었다. 입학전형 유형은 특별전형이 55명(85.9%)로 대부분이었으며, 그밖에 일반전형 8명(12.5%), 기타 1명(1.6%)이었다. 출신고교 유형은 특수학교가 54명(84.4%)로 대부분이었으며, 그밖에 일반학교 9명(14.1%), 기타 1명(1.6%)이었다.

<표 III-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배경변인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28	43.8
	여자	36	56.3
연령	18~19세	12	18.8
	20~21세	31	48.4
	22~23세	13	20.3
	24세 이상	8	12.5
전공분야	사범계열	26	40.6
	인문계열	13	20.3
	사회계열	15	23.4
	종교계열	3	4.7
	예체능계열	7	10.9
학년	1학년	19	29.7
	2학년	15	23.4
	3학년	16	25.0
	4학년	14	21.9
장애정도	심한장애(시각장애 1~3급)	56	87.5
	심하지 않은 장애(시각장애 4~6급)	8	12.5
학습매체	일반문자	26	40.6
	점자	35	54.7
	음성	3	4.7
입학전형유형	일반전형	8	12.5
	특별전형	55	85.9
	기타	1	1.6
출신고교유형	일반학교	9	14.1
	특수학교	54	84.4
	기타	1	1.6
계		64	100.0

2. 연구 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영역, 진로장벽 척도, 장애정체감 척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성별, 연령, 학년, 전공분야, 시각장애 정도, 학습매체, 대학 입학 전형 유형 및 출신 고교 유형 등에 관한 문항이었다. 진로장벽 척도, 장애정체감 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의 구성에 대해 각각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진로장벽 척도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장벽 척도는 김은영(2001)의 ‘대학생용 진로장벽 검사’를 김원호와 김동일(2011)이 장애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에 맞게 수정 및 타당화한 ‘장애대학생용 진로장벽 검사’이다. 이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높은점수를 보일수록 진로장벽의 방해 정도를 강하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원호와 김동일(2011)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 .800 \sim .878$ 이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22$ 이다. 진로장벽척도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분석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진로장벽척도 하위요인별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의 알파
자기명확성 부족	1, 2, 3, 4, 5	5	.828
경제적 어려움	6, 7, 8	3	.878
정보부족 및 미래불안	9, 10, 11, 12	4	.800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13, 14, 15, 16	4	.874
나이문제	17, 18, 19	4	.823
장애관련요인	20, 21, 22, 23, 24, 25	5	.836
전체	1~25	25	.922

2) 장애정체감 척도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장애정체감 척도는 이익섭과 신은경(2006)이 개발하고 수정한 장애정체감 척도(이익섭, 홍세희, 신은경, 2007)이다. 이 척도는 ‘인간으로서의 가치’, 8문항, ‘외적 장애물에 대한 인식’ 4문항, ‘장애수용’ 4문항, ‘권리주장성’ 4문항 등 다섯 개의 하위요인 총 23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나(신은경, 이익섭, 2006), Rash 모형(이익섭, 홍세희, 신은경, 2007)을 이용한 타당성 검증을 통해 ‘장애수용’ 차원을 ‘인간으로서의 가치’에 통합해 하위요인 4개, 문항 20개로 정리한 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며, 높은 점수를 보일수록 장애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이용(2011)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 .89$ 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33$ 이다. 하위요인중 외적장애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 .349$ 로 낮게 나와 이 연구에서는 이 하위 요인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장애정체감척도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분석은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장애정체감척도 하위요인별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의 알파
인간으로서의 가치	1, 2, 3, 4, 5, 6, 7, 8, 9	9	.781
시민적 권리	10, 11, 12, 13	4	.745
공통근거	14, 15, 16	3	.762
외적장애	17, 18, 19, 20	4	.349
전체	1~20	20	.833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는 Voyten와 Betz(1997)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척도(Caree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CDMSES-SF)를 이학주과 이기학(2000)가 번안한 것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는 5개 하위 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며, 높은점수를 보일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백효주(2013)가 전라북도지역 4년제 대학생 7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는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 .664 \sim .780$ 이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15$ 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및 문항구성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요인별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의 알파
직업정보	1, 10, 15, 19, 23	5	.719
목표선택	2, 6, 11, 16, 20	5	.780
미래계획	3, 7, 12, 21, 24	5	.759
문제해결	4, 8, 13, 17, 25	5	.746
자기평가	5, 9, 14, 18, 22	5	.664
전체	1~25	25	.915

3. 연구 절차

이 연구의 설문조사는 한국시각장애대학생연합회 학생들의 동의를 받은 후 2020년 8월과 9월 약 2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구글(Google)을 통해 배포하였고,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답변이 정확하지 않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경우를 제외한 전체 64부만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4. 자료 처리

이 연구에서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6.0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시각장애대학생의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내적 일관성 지수인 Cronbach의 알파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시각장애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시각장애대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라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또는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시각장애대학생의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시각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진로장벽 및 장애정체감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시각장애대학생의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

이 연구에 참여한 시각장애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 요인과 그 하위 요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1>과 같다.

진로장벽의 전체 수준은 평균 2.45점이었다. 하위요인별로 보면 정보 부족 및 미래불안이 평균 2.8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기명확성 부족 평균 2.67점, 장애관련 요인 평균 2.53점, 경제적 어려움 평균 2.25점, 나이문제 평균 2.20점,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평균 1.9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정체감의 전체 수준은 평균 3.09점이었다. 하위 요인별로 보면 시민적 권리가 평균 3.3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간으로서의 가치 평균 3.07점, 공통근거 평균 2.8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전체 수준은 평균 3.20점이었다. 하위 요인별로 보면 자기평가 평균 3.32점, 목표선택 평균 3.27점, 직업정보 평균 3.21점, 미래계획 평균 3.13점, 문제해결 평균 3.0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 시각장애대학생의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기술통계량 (N=64)

척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진로장벽	자기명확성 부족	1.00	4.60	2.67	.92
	경제적 어려움	1.00	5.00	2.25	1.03
	정보부족 및 미래불안	1.00	5.00	2.88	.98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1.00	4.75	1.94	.91
	나이문제	1.00	5.00	2.20	.97
	장애관련요인	1.00	4.50	2.53	.87
	전체	1.00	4.00	2.45	.69
장애정체감	인간으로서의 가치	2.00	4.00	3.07	.50
	시민적 권리	2.00	4.00	3.32	.56
	공통근거	1.00	4.00	2.85	.73
	전체	2.13	4.00	3.09	.4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직업정보	2.20	4.00	3.21	.52
	목표선택	2.00	4.00	3.27	.55
	미래계획	1.80	4.00	3.13	.58
	문제해결	1.80	4.00	3.09	.58
	자기평가	2.60	4.00	3.32	.44
	전체	2.24	4.00	3.20	.44

2. 시각장애대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 비교

1) 성별에 따른 차이

시각장애대학생의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성별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표 IV-2>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2> 성별에 따른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t	p	
진로 장벽	자기명확성 부족	남자	28	2.73	.87	.46	.65
		여자	36	2.62	.96		
	경제적 어려움	남자	28	2.31	1.19	.40	.69
		여자	36	2.20	.91		
	정보부족 및 미래불안	남자	28	2.78	1.16	-.76	.47
		여자	36	2.97	.81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남자	28	2.00	.88	.45	.65
		여자	36	1.90	.94		
	나이문제	남자	28	2.18	1.08	-.14	.89
		여자	36	2.21	.90		
	장애관련요인	남자	28	2.60	.94	.56	.58
		여자	36	2.47	.82		
전체	남자	28	2.47	.76	.26	.79	
	여자	36	2.43	.64			
장애 정체감	인간으로서의 가치	남자	28	3.14	.48	1.02	.31
		여자	36	3.02	.51		
	시민적 권리	남자	28	3.28	.55	-.60	.55
		여자	36	3.36	.57		
	공통근거	남자	28	2.87	.76	.19	.85
		여자	36	2.83	.73		
전체	남자	28	3.13	.46	.52	.61	
여자	36	3.07	.42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직업정보	남자	28	3.24	.50	.31	.76
		여자	36	3.19	.54		
	목표선택	남자	28	3.27	.58	.07	.94
		여자	36	3.26	.53		
	미래계획	남자	28	3.15	.62	.27	.79
		여자	36	3.11	.55		
	문제해결	남자	28	3.19	.51	1.30	.20
		여자	36	3.01	.62		
	자기평가	남자	28	3.26	.45	-.81	.42
		여자	36	3.36	.44		
전체	남자	28	3.22	.47	.33	.74	
	여자	36	3.19	.42			

2) 전공분야에 따른 차이

이 연구에서는 시각장애대학생들의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전공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표 IV-3>과 같이 진로장벽의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목표선택, 자기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명확성은 비사범대가 평균 2.84점으로 사범대 평균 2.35점보다 높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은 비사범대가 평균 2.53점으로 사범대 평균 1.85점 보다 높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목표선택은 사범대가 평균 3.43점으로 비사범대 평균 3.15점 보다 높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평가는 사범대가 평균 3.48점으로 비사범대 평균 3.20점보다 높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IV-3> 전공분야에 따른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t	p	
진로 장벽	자기명확성 부족	사범대	24	2.35	.91	-2.13	.04*
		비사범대	39	2.84	.88		
	경제적 어려움	사범대	24	1.85	.78	-2.68	.01**
		비사범대	39	2.53	1.09		
	정보부족 및 미래불안	사범대	24	2.70	.98	-1.34	.19
		비사범대	39	3.03	.96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사범대	24	2.01	.89	.37	.71
		비사범대	39	1.92	.94		
	나이문제	사범대	24	2.06	.84	-1.04	.30
		비사범대	39	2.32	1.04		
	장애관련요인	사범대	24	2.30	.78	-1.50	.14
		비사범대	39	2.63	.88		
	전체	사범대	24	2.24	.65	-1.87	.07
		비사범대	39	2.57	.70		
장애	인간으로서의	사범대	24	3.02	.45	-0.54	.59

정체감	가치	비사범대	39	3.09	.52		
	시민적 권리	사범대	24	3.29	.55	-.24	.81
		비사범대	39	3.33	.57		
	공통근거	사범대	24	3.00	.65	1.25	.22
		비사범대	39	2.76	.78		
	전체	사범대	24	3.08	.38	-.03	.98
비사범대		39	3.09	.47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직업정보	사범대	24	3.21	.57	.06	.95
		비사범대	39	3.20	.49		
	목표선택	사범대	24	3.43	.50	2.04	.05*
		비사범대	39	3.15	.56		
	미래계획	사범대	24	3.17	.60	.42	.68
		비사범대	39	3.10	.58		
	문제해결	사범대	24	3.03	.58	-.55	.58
		비사범대	39	3.11	.58		
	자기평가	사범대	24	3.48	.38	2.57	.01*
		비사범대	39	3.20	.45		
	전체	사범대	24	3.26	.43	.98	.33
		비사범대	39	3.15	.44		

* p<.05, ** p<.01

3) 학년에 따른 차이

이 연구에서는 시각장애대학생의 진로장벽, 장애 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표 IV-4>와 같이 인간으로서의 가치, 장애 정체감, 자기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1학년이 평균 3.3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학년 평균 3.01점, 2학년 평균 2.94점, 4학년 평균 2.89점의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장애정체감은 1학년이 평균 3.3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학년 평균 3.08점, 2학년 평균 2.95점, 4학년 평균 2.92점의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평가는 1학년이 평균 3.5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학년 평균 3.26

점, 2학년 평균 3.20점, 4학년 평균 3.17점의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IV-4> 학년에 따른 진로장벽, 장애 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진로장벽	자기 명확성 부족	1학년	19	2.65	.96	.236	.87
		2학년	15	2.84	1.01		
		3학년	16	2.60	.81		
		4학년	14	2.59	.94		
	경제적 어려움	1학년	19	2.16	.97	.132	.94
		2학년	15	2.31	1.12		
		3학년	16	2.35	1.11		
		4학년	14	2.19	1.04		
	정보부족 및 미래불안	1학년	19	2.89	1.12	.080	.97
		2학년	15	2.97	.71		
		3학년	16	2.88	1.01		
		4학년	14	2.79	1.07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1학년	19	2.11	1.09	.439	.73
		2학년	15	1.93	.60		
		3학년	16	1.94	.97		
		4학년	14	1.73	.90		
나이문제	1학년	19	2.16	.99	.223	.88	
	2학년	15	2.07	1.01			
	3학년	16	2.23	.95			
	4학년	14	2.36	1.03			
장애관련 요인	1학년	19	2.39	.98	.351	.79	
	2학년	15	2.68	.78			
	3학년	16	2.47	.78			
	4학년	14	2.61	.95			
전체	1학년	19	2.42	.87	.075	.97	
	2학년	15	2.52	.54			
	3학년	16	2.43	.54			
	4학년	14	2.41	.76			
장애 정체감	인간 으로서의 가치	1학년	19	3.36	.41	3.673	.02*
		2학년	15	2.94	.48		
		3학년	16	3.01	.45		
		4학년	14	2.89	.54		
	시민적	1학년	19	3.43	.55	1.716	.17

	권리	2학년	15	3.17	.60	2.119	.11			
		3학년	16	3.50	.47					
		4학년	14	3.14	.58					
	공통근거	1학년	19	3.19	.75					
		2학년	15	2.67	.67					
		3학년	16	2.75	.80					
	전체	4학년	14	2.69	.61			4.025	.01*	
		1학년	19	3.35	.42					
		2학년	15	2.95	.42					
		3학년	16	3.08	.39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직업정보	4학년	14	2.92			.40	.944	.43
			1학년	19	3.32			.36		
2학년			15	3.31	.60					
3학년			16	3.06	.62					
목표선택		4학년	14	3.14	.49	1.269	.29			
		1학년	19	3.44	.47					
		2학년	15	3.19	.56					
		3학년	16	3.29	.70					
미래계획		4학년	14	3.09	.43	1.406	.25			
		1학년	19	3.28	.41					
		2학년	15	3.20	.64					
		3학년	16	2.90	.64					
문제해결	4학년	14	3.10	.61	.771	.52				
	1학년	19	3.24	.50						
	2학년	15	3.05	.67						
	3학년	16	2.95	.58						
자기평가	4학년	14	3.07	.58	3.056	.04*				
	1학년	19	3.56	.29						
	2학년	15	3.20	.48						
	3학년	16	3.26	.52						
전체	4학년	14	3.17	.39	1.455	.24				
	1학년	19	3.37	.32						
	2학년	15	3.19	.52						
	3학년	16	3.09	.50						

* p<.05

4) 학습매체에 따른 차이

이 연구에서는 시각장애대학생의 진로장벽, 장애 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읽기·쓰기 매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표 IV-5>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IV-5> 학습매체에 따른 진로장벽, 장애 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t	p	
진로 장벽	자기 명확성 부족	일반문자	26	2.65	.82	-.11	.91
		점자 및 음성	38	2.68	.99		
	경제적 어려움	일반문자	26	2.37	.97	.78	.44
		점자 및 음성	38	2.17	1.08		
	정보부족 및 미래불안	일반문자	26	2.78	.85	-.70	.47
		점자 및 음성	38	2.95	1.06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일반문자	26	1.88	.73	-.48	.61
		점자 및 음성	38	1.99	1.02		
	나이문제	일반문자	26	2.33	1.14	.92	.36
		점자 및 음성	38	2.11	.85		
장애관련요인	일반문자	26	2.63	.66	.78	.41	
	점자 및 음성	38	2.46	.99			
전체	일반문자	26	2.47	.56	.24	.81	
	점자 및 음성	38	2.43	.77			
장애 정체 감	인간으로서의 가치	일반문자	26	2.96	.41	-1.48	.13
		점자 및 음성	38	3.15	.54		
	시민적 권리	일반문자	26	3.21	.47	-1.34	.19
		점자 및 음성	38	3.40	.61		
	공통근거	일반문자	26	2.91	.67	.55	.59
		점자 및 음성	38	2.81	.78		
전체	일반문자	26	3.01	.35	-1.20	.24	
	점자 및 음성	38	3.15	.49			
진로 결정 자기 효능 감	직업정보	일반문자	26	3.28	.53	.82	.42
		점자 및 음성	38	3.17	.51		
	목표선택	일반문자	26	3.37	.45	1.25	.22
		점자 및 음성	38	3.19	.61		
	미래계획	일반문자	26	3.22	.59	1.00	.32
		점자 및 음성	38	3.07	.57		

문제해결	일반문자	26	3.15	.53	.67	.51
	점자 및 음성	38	3.05	.61		
자기평가	일반문자	26	3.38	.42	.91	.37
	점자 및 음성	38	3.27	.46		
전체	일반문자	26	3.28	.40	1.13	.26
	점자 및 음성	38	3.15	.47		

3. 시각장애대학생의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1)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이 연구에서는 시각장애대학생들의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표 IV-6>과 같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장벽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장애정체감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IV-6>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	1		
장애정체감	-.145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278*	.472***	1

* p<.05, *** p<.001

2) 진로장벽의 하위요인과 진로결정 및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이 연구에서는 시각장애대학생들의 진로장벽의 하위요인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정보부족 및 미래불안,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나이문제, 장애관련 요인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7> 진로장벽의 하위요인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구분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정보부족 및 미래불안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나이문제	장애관련요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명확성 부족	1						
경제적 어려움	.282*	1					
정보부족 및 미래불안	.521***	.507***	1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591***	.337**	.543***	1			
나이문제	.481***	.507***	.522***	.504***	1		
장애관련요인	.458***	.269*	.462***	.347**	.363**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222	-.097	-.327**	-.320**	-.186	-.089	1

* p<.05, ** p<.01, *** p<.001

3) 장애정체감의 하위요인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이 연구에서는 시각장애대학생들의 장애정체감의 하위요인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는 <표 IV-8>과 같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장애정체감의 하위요인인 인간으로서의 가치, 시민적 권리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공통근거와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8> 장애정체감의 하위요인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구분	인간으로서의 가치	시민적 권리	공통근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인간으로서의 가치	1			
시민적 권리	.466***	1		
공통근거	.361**	.269*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60***	.332**	.231	1

* p<.05, ** p<.01, *** p<.001

4. 시각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진로장벽과 장애정체감의 영향력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진로장벽과 장애정체감의 영향력

이 연구에서는 시각장애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진로장벽, 장애정체감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9>와 같다.

진로장벽과 장애정체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R^2=.268$ 로 26.8%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각 변인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장애정체감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진로장벽과 장애정체감의 회귀분석

변인	R	R ²	F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B	β	t	p
	.518	.268	11.158***				
상수				2.160		5.25***	.00
진로장벽				-.137	-.214	-1.93	.06
장애정체감				.445	.441	3.99***	.00

*** p<.001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 하위요인 분석

이 연구에서는 시각장애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진로장벽 하위요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R²=.153으로 15.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본 회귀모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변인들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IV-1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진로장벽 하위요인의 회귀분석

변인	R	R ²	F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B	β	t	p
	.391	.153	1.713				
상수				3.582		17.47***	.00
자기명확성 부족				-.005	-.011	-.07	.95
경제적 어려움				.046	.108	.72	.48
정보부족 및 미래불안				-.136	-.302	-1.76	.08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106	-.220	-1.33	.19

나이 문제				-0.002	-0.005	-0.03	.98
장애관련요인				.053	.105	.73	.47

*** p<.001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정체감 하위요인 분석

이 연구에서는 시각장애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장애정체감 하위요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장애정체감의 하위요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R^2=.232$ 로 23.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각 변인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장애정체감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적 권리, 공통근거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장애정체감 하위요인의 회귀분석

변인	R	R ²	F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B	β	t	p
	.481	.232	6.035**				
상수				1.713		4.72***	.00
인간으로서의 가치				.331	.372	2.80**	.01
시민적 권리				.113	.143	1.11	.27
공통근거				.035	.058	.47	.64

** p<.01, *** p<.001

V. 논의

이 연구는 시각장애대학생 64명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장애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알아보았고,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과 장애정체감 요인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선행논문과 관련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대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진로장벽의 수준 차이는 전공분야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성별, 학년, 학습매체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김보미(2020)의 연구에서는 성별과 학년, 전공계열에 따른 진로장벽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연구와는 상이하게 나왔다. 이성식(2007)의 연구에서는 전공계열에 따라 차이를 분석 하였을 때 인문·사회계열, 자연·공학계열, 사범계열의 순으로 진로장벽이 높게 나타났고, 학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전체 진로장벽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하위요인인 ‘차별’과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도 전체 진로장벽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하위요인 중 자기명확성 부족은 비사범대가 평균 2.84점으로 사범대 평균 2.35점 보다 높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은 비사범대가 평균 2.53점으로 사범대 평균 1.85점 보다 높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유수복(2013)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이 전공과 희망하는 진로가 불일치하는 경우 진로장벽이 높게 나오고, 진로장벽이 전공과 희망하는 진로가 일치하는 경우 진로장벽이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비사범대가 사범대보다 진로장벽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 논문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범대 학생들은 비교적 교원 임용고사라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극복해서 이겨내려는 의지가 높아서 진로장벽 수준이 낮게 나온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각장애대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장애정체감은 성별, 전공분야, 학습매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학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장애정체감은 1학년이 평균 3.3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학년 평균 3.08점, 2학년 평균 2.95점, 4학년 평균 2.9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주영(2013) 연구에서 장애정체감에 배경변인인 학년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장애유형, 장애등급,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2014) 연구에서도 성별, 학년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장애유형, 장애등급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다른 유형의 장애대학생들과 구별되는 시각장애대학생만이 가지고 있는 시지각의 결여로 인한 환경적 경험과 대상과의 직접 접촉 및 경험의 제약성 등 독특한 특성으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정체감에 대한 영향요인은 개인, 환경, 손상 중 어느 하나의 요인으로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요인으로 형성되므로 긍정적인 장체정체감 형성을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개선, 비장애인의 의식 및 태도의 변화와 함께 가족이나 또래들과의 활발한 상호작용, 심리적 지원으로 지속적인 상담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시각장애대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전공분야와 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목표선택은 사범대가 평균 3.43점으로 비사범대 평균 3.15점 보다 높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평가는 사범대가 평균 3.48점으로 비사범대 평균 3.20점 보다 높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평가는 1학년이 평균 3.5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학년 평균 3.26점, 2학년 평균 3.20점, 4학년 평균 3.17점의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김정은(2014)의 연구에서는 3, 4학년이 장애대학생이 1, 2학년 장애대학생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왔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지각한다(강정은, 2008; 이진솔, 2012). 유수복(2013)의 연구에서도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은 4, 3, 2, 1학년 순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성식(2007)의 연구는 진로장벽 인식,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배경변인인 학년에서 선행연구들과 다소 다르게 나타났는데 연구대상 시각장애대학생 대부분이 중증 장애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시각장애대학생들의 이동의 제한과 의사결정능력의 결함, 장애의 손상이 클수록 진로결정이나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결과와 연관 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각장애대학생의 장애특성상 저

학년 때부터 특정 직업으로만 취업준비를 해 온 영향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정보부족 및 미래불안,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나이문제, 장애관련 요인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각 변인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진로장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옥(2018)의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중 직업정보 부족이 진로결정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명숙(2003)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중에서 자신의 능력과 가치, 욕구 등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에 적합한 직업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김민정과 고봉환(2007)은 여대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중(200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분석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이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2014)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 하위 요인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장애관련, 경제적 어려움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와 선행논문간의 관계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장벽과 부적 상관관계는 있지만 하위요인간의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났다. 선행논문들은 대학생, 장애대학생들로 구성된 논문들이었고 단일 영역 시각장애인을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이 아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섯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장애정체감의 하위요인인 인간으로서의 가치, 시민적 권리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정체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김정은, 2014; 이문정, 나운환, 2013; 이문정, 박봉길, 2014)와 일치한다. 각 변인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장애정체감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으로서 가치 요인은 본인이 인간으로서 갖는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장애를 수용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익섭, 신은경, 2006). 본인의 장애에 대해 수용적인 장애인 은 장애정체감 수준이 높고, 건강한 장애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은 장애의 차이를 자신의 자부심으로 인식하고,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현실적 장벽을 이해하고 그 장벽을 변화의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Elias & Debra, 2006). 또한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 대한 수용의 태도가 높으면 자아존중감 수준과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Vash & Crawe, 2004).

종합해보면 시각장애대학생의 대학입학특별전형 확대로 말미암아 많은 시각장애대학생들이 다양한 형태로 대학에 입학하고 있고, 대학 졸업 이후 시각장애대학생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계획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전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 지원 시스템을 설치 하는데 있어 시각장애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평가하고, 각 요인들 간의 관계, 시각장애대학생의 특성들을 고려한 지원이 제공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 하였다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시각장애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장애정체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를 위해 전국 시각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최종 64명의 자료를 결과 분석에 활용 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는 진로장벽 척도, 장애정체감 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이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6.0을 사용하여 시각장애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장애정체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각장애대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라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의 차이 검증(독립표본 t-검증,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시각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진로장벽, 장애정체감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와 이에 따른 논의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대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차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진로장벽은 전공분야 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 학년, 학습매체에서는 비슷한 정도의 진로장벽의 수준을 보였다. 장애정체감은 학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1학년이 평균 3.3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학년 평균 3.08점, 2학년 평균 2.95점, 4학년 평균 2.9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전공분야, 학습매체에서는 비슷한 정도의 장애정체감 수준을 보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전공분야와 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목표선택은 사범대가 평균 3.43점으로 비사범대 평균 3.15점 보다 높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평가는 사범대가 평균 3.48점으로 비사범대 평균 3.20점 보다 높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서는 1학년이 평균 3.5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학년 평균 3.26점, 2학년 평균

3.20점, 4학년 평균 3.17점의 순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성별, 학습매체에서는 비슷한 정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보였다.

둘째, 시각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과 장애정체감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정보부족 및 미래불안,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나이문제, 장애관련 요인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진로장벽, 장애정체감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장애정체감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진로장벽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 하위요인 분석에서는 각 변인들로 유의한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장애정체감의 하위요인인 인간으로서의 가치, 시민적 권리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공통근거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장애정체감의 각 변인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장애정체감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적 권리, 공통근거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시각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진로장벽과 장애정체감의 변인을 살펴 보았다. 표본수가 적어서 연구 결과를 모든 시각장애대학생에게 일반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시각장애대학생의 대표성을 확보할 만큼의 표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시각장애라는 단일 장애유형만을 조사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장애유형의 대학생들을 조사함으로써 장애유형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할 필요도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시각장애대학생의 진로장벽, 장애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시각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 연구는 자료수집 방법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질문지법은 연구대상의 허위 반응을 통제하지 못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동진 (2005). 내외통제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휴대폰 과다사용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창원.
- 강연정 (2018). 장애대학생의 환경적변인(사회적지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강정은 (2008). 진로장벽,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고미나, 박재황 (2012). 대학생의 내외적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학년차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5(2), 81-100.
- 교육부 (2017a).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7b).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김대룡, 신현기 (2011). 발달장애 대학생의 직업전환을 위한 진로태도 분석. *지적장애연구*, 13(3), 133-152.
- 김동숙, (2011).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사회적지지 인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서울.
- 김명숙, 박미경, 이현림 (2008). 여대생의 사회적지지, 진로장벽, 자아정체감, 진로결정 수준의 구조적 분석. *직업교육연구*, 27(2), 1-20.
- 김민정, 고봉환 (2007). 불안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1), 13-25.
- 김보미 (2020). 지방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해.
- 김선중 (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 영향.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성연, 이익섭, 최지선 (2007). 지체장애인의 장애정체감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재활복지*, 11(3), 56-76.
- 김수리 (2004).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원호, 김동일 (2011). 장애 대학생용 진로장벽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장애와 교용*, 21(2), 5-25.
- 김은영 (2001). 대학생의 진로장애 양상분석. *학생생활연구*, 12, 69-78.
- 김은영 (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자경, 신보희, 장성욱(2017). 장애대학생의 장애수용과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4), 66-82.
- 김정은 (2014). 장애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정체감이 진로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장애연구*, 11(2), 27-47.
- 김종운, 박성실 (2011). 대학생의 정서지능,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4(4), 209-229.
- 김진윤 (2007).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의 진로장애지각이 직업가치 및 직업포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수원.
- 김효현 (2006). 지체장애대학생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구성 및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대구.
- 문영민 (2016). 장애 공연예술은 장애정체성과 어떻게 공명하는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326, 84-87.
- 문주영 (2013). 사회적 지지가 장애대학생의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장애정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박경숙 (2013). 여대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박량은, 박재국, 서보순, 조현진 (2016).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에 대한 근거

- 이론적 접근. 특수교육저널, 17(1), 239-267.
- 박성실 (2012).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부산.
- 배영광 (2013). 장애대학생의 장애정체감과 낙인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백효주 (2013).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익산.
- 손은령 (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손은령 (2002). 대학생의 개인적 변인과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5(2), 1-14.
- 손은령, 손진희 (2005).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신유리, 김정석, 허준기(2018). 장애정체감의 하위차원별 영향요인과 함의. 인문사회과학연구, 0(58), 21-44.
- 신은경 (2007). 장애인 개인 및 지원환경요인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17(1), 121-146.
- 신은경, 최정아 (2007).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척수손상장애인의 사회통합 영향요인: 우울, 장애정체감, 사회적지지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11, 1-26.
- 신정옥 (2011).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진로장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 관계. 교육연구, 19(2), 109-141.
- 엄정혜 (2012). 장애수용, 장애정체감, 사회적지지가 장애인의 비전통적 진로효능감 및 진로흥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울.
- 엄정혜, 양은주 (2016). 성인 장애인의 장애수용, 장애정체감, 사회적 지지가 비전통적 진로효능감 및 진로흥미에 미치는 영향: 사회인지진로이론 적용.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5(1), 215-231.
- 오은영 (2013).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

- 효능감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 대학원, 서울.
- 유수복 (2013).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청주
- 유수복, 윤희미 (2014).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 19(3), 405-421.
- 윤현희 (2008). 장애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대구.
-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 성숙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이명숙 (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각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대학원, 전주.
- 이문정, 나운환 (2013). 장애청년의 장애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장벽이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 1-23.
- 이문정, 박봉길 (2014). 장애대학생의 장애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의 다중매개효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3(1), 199-222.
- 이민옥 (2018). 전문대학생이 인식한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목포.
- 이석원, 정술 (2016).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장애와교육*, 26(1), 41-66.
- 이성식 (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성식, 정철영 (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4), 83-109.
- 이순영 (2007). 대학생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애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서울.
- 이상희 (2007). 진로장애와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75-392.
- 이아라 (2006). 남녀 학업 우수 청소년의 진로장벽, 학업효능감 및 진로포부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용, 이주희, 이한나 (2011). 장애대학생의 장애정체감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연구. *특수교육*, 10(3), 245-268.
- 이윤경 (2010). 장애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의 영향요인.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전주.
-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은진 (2001).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익섭, 신은경(2005). 장애정체성 개념화 연구: 포커스 그룹면접과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4), 509-530.
- 이익섭, 신은경(2006). 장애정체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척수손상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111-141.
- 이익섭, 홍세희, 신은경(2007). 장애정체감 척도의 Rasch모형 적용. *한국사회복지학회*, 59(4), 273-296.
- 이정민 (2010). 대학생의 진로교육이 진로장벽 및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정애, 최응용 (2010). 장애대학생과 비장애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진로포부 비교. *장애와 고용*, 67(2), 55-76.
- 이지수 (2014).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 가진 의미와 한계: 장애개념 정의와 정체성의 정치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25, 33-54.
- 이진술(2012) 고등학교의 학교유형에 따른 진로자기효능감 수준 및 영향요인 연

- 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한나 (2008). 척수장애인의 장애정체감과 사회참여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현주 (2000).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인지양식 차이.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8(1), 235-257.
- 임통일 (2013). 장애관련요인이 장애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에 미치는 요인간 구조분석. *취업진로연구*, 23(1), 1-25.
- 장경문 (200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6(1), 185-196.
- 전지혜 (2011). 장애정체감으로서의 장애자부심, 그리고 장애문화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 *한국장애인복지학*, 15, 57-76.
- 정민, 노안영 (2008). 대학생의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낙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391-405.
- 정세영, 박재국 (2013).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6(3), 133-150.
- 정진선(2001).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이 진로의사결정효능감 및 진로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울.
- 정태준 (2018). 취업을 준비중인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미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정홍원 (2002). 여대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최현정 (2006). 희망과 성취목표가 진로포부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서울.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 Bandura, A. (1982). The self and mechanisms of agency. In J. Suls(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3-39. Hillsdale, NJ: Erlbaum.
- Betz, N. E., & Hackett, G. (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university women and m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399-410.
- Betz, N. E. & Fitzgerald, L. F. (1987). *The career psychology of women*. Orlando. FL: Academic Press.
- Betz, N. E., Klie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 Betz, N. E. & Vo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Career Development Quartely*, 46, 179-189.
- Brown, S. D. & Lent, R. W. (1996). A social cognitive framework for career choice counseling.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ly*, 44, 354.
- Brown, S. T., Lent, R. W., & Hackett, G. (1994). Monograph: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Crites, J. O. (1969).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McGrew-hill.
- Crites, J. O. (1978). *Manual of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for adults: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Monterey*. CA: CBT/McGraw-Hill. Inc.
- Crites, J. O. (1981). *Career counseling: Models, methods, and materials*. New York: Mc Grew hill.
- Darling, R. B. (2013). *Disability and identity: Negotiating self in a changing society*. Lynne Rienner Publishers.

- Dignam, M. H. (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476-483.
- Erickson, E. H. (1913).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ton & Inv.
- Elias M & Debra A. H (2006). Racial and Disability identity: Implications for the Career Counseling of African American With Disabilities. *Rebabiiltation Counseling Bulletin*, 50, 14-23.
- Fitzgerald, L. F., Fassinger, R. E. & Betz, N, E.(1995). *Theoretical advances in the study of women's career development*. In Walsh, W. B. & Osipow, S. H.(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Mahwah, NJ: Erlbaum Associates.
- Galvin, R. D. (2005). Researching the disabled identity: Contextualising the identity transformations which accompany the onset of impairment. *Socioiology of Health & Illness*, 27(3), 393-413
- Gill, C. J. (1997). Four types of integration in disability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9, 39-46.
- Gottfredson, G. D.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79.
- Farmer, H. S. (1985). Model of career and achievement motivation for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8, 255-259.
- Hackett, G., & Byars, A. M. (1996). Social cognitive theory and the career development of African American wome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4, 332-340.
- Hahn, H. (1997). An agenda for citizens with disabilities: Pursuing identity and empowerment,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s*, 9(1), 31-37.
- Kidd. J. M. (1998). Emotion: An absent presence in career the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2(3), 275-288.
- London, M. (1997). Overcoming career barriers: A model of con. gnitive and emotional process for realistic appraisal and constructive coping.

-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4(1), 25-38.
- Luzzo, D. A. (1997). *Correlates of Mexican American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career-related barrie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
- O'leary, V. E. (1974). *Some attitudinal barriers to occupational aspirations in women*. *Psychological Bulletin*, 81, 809-826.
- Putnam, M. M. (2001). *Individual Disability Identity: A Beginning Exploration Into Its Nature, Structure and Relevance for Political Coalition Building*.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Shakespeare, T. (1996). Disabilities, identity constructions. *Disability & Society Press*, 94-113.
- Shakespeare, T. (1996). Disabilities, identity constructions. *Disability & Society Press*, 94-113.
- Shur, L. (1998). Disability and the psychology of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9(2), 3-31.
- Sue, D. W., & Sue, D.(1999). *Counseling the culturally different: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NY: John Willy & Sons, Inc.
- Swanson, J. L, & Tokar, D. A.(1991a).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8, 92-106.
- Swanson, J. L, & Tokar, D. A.(1991b).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9, 344-361.
- Swanson, J. L, & Woiitke, M. B.(1997). Theory into pratics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preta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443-462.
- Swanson, J. L, & Daviel, K, K. (1995). *The relation of perceived Career*

- barriers to self esteem, self-efficacy, and locus of control.*
Unpublished manuscrip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 Tak, J. K., & Lee, K. H. (2003). development of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to career in 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7-31*.
- Tolbert, E. L. (1980)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g.
- Vash, C. L., & Crewe, N. (2004). *Psychology of disability(2nd ed.)*. New York: Springer.
- Wright, B. A. (1980). *Physical disability: A psychological approach*.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 Inc.
- Williams, J. E. & Coombs, W. T. (1996). *An analysis of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Bandura's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elf-Efficac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ew York, NY.
- Zola, I. K. (1993). Self, Identity and the Naming Question: Reflections on the Language of Disabilit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6(2)*, 167-173.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교사 김혜숙입니다.

이 연구는 시각장애대학생이 진로 장벽, 장애, 진로결정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진로 장벽, 장애 정체성 및 진로결정 효능감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시각장애대학생들을 위한 상담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지의 각 문항은 맞거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문항을 읽고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이 설문지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비밀이 보장** 됩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자: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석사과정 김혜숙

(E-mail: hsook1026@hanmail.net)

지도교수: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김영일

I. 참여자 기본 사항

※ 다음은 귀하의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로 표시해 주시거나 답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전공은? ()학과(부)
4. 귀하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휴학 중
5. 귀하의 시각장애 정도는?
 ① 심한 장애(시각장애 1~3급) ② 심하지않은 장애(시각장애 4~6급)
6. 귀하가 학업을 위해 사용하는 주된 읽기·쓰기 매체는?
 ① 일반문자(확대경 등 저시력 기구 사용 포함) ② 점자 ③ 음성
7. 귀하의 입학전형 유형은?
 ① 일반전형 ② 특별전형 ③ 기타
8. 귀하의 출신고교 유형은?
 ① 일반학교 ② 특수학교 ③ 검정고시 ④ 기타

II. 진로장벽

※ 아래 문항은 진로 혹은 직업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같은 것에 √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우유부단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일하는 데 필요한 주장(나의 의견을 설득시키는 능력)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무엇인가를 결정내리고 난 후 그 결정에 대해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진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경제적 문제로 인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막연한 불안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장애인 직업 관련 전문상담의 부족과 정보접근의 제한으로 내가 원하는 직업 관련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3. 앞으로 나의 진로는 부모님의 반대나 간섭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부모님이나 이성 친구가 나의 진로 선택을 좋아하지 않을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부모님이나 집안의 기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직업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나이 때문에 진로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나이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나이 때문에 진로를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있어 지장을 받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내가 가진 장애로 인해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가진 장애가 더 진행(퇴행성)될 것이라는 생각에 구직활동을 하거나 경제활동하기가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의 장애로 인해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 것이 진로 구직상황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는 나의 신체적 조건이 나쁘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건강(신체적 장애) 때문에 직업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의 장애는 직업선택 및 결정에 다른 요소(학업, 나이, 가정형편 등)보다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III. 장애정체감

※ 아래 문항은 귀하가 장애와 관련하여 자신을 어떻게 보고 느끼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같은 것에 √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않 다	그렇지 않다	그 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더 많은 장점들도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 장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 만큼 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사람들을 사귀는 데 있어 내가 가진 신체적 결함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장애인의 결혼생활이 비장애인의 결혼생활과 다를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생활의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①	②	③	④
7.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사회에 더 잘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사람들은 장애와 상관없이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사람들이 나를 장애인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공공시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사람들이 장애인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를 부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2.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승진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4.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친밀감이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장애인에 대하여 매우 강한 애착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16.	유형이 다른 장애인과 대화를 나누더라도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17.	신체적 결함만으로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8.	장애인들은 모두 비슷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19.	장애 때문에 재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비장애인이 장애인보다 지적으로 우월하다는 태도를 보일 때 거부감이 든다.	①	②	③	④

IV. 진로자기효능감

※ 아래 문항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자신감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같은 것에 √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관심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여러 가지 전공들이 나열되어 있는 목록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만약 내가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는데 학업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떤 방법들을 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나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마음에 두고 있는 직업목록들 중에서 한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선택한 전공을 이수하는 데 어떤 교육과정이 요구되는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한 전공이나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향후 10년 간의 직업고용 경향을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11. 내가 선호하는 생활방식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나의 이력서를 멋지게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13. 처음 선택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전공을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14. 직업선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 나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5. 생각하고 있는 직업의 평균 수입과 연봉을 알아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16. 진로결정을 하고 나면, 그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7. 선택한 진로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18.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어떤 희생을 감수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어려운지를 구분해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19. 내가 관심 있어 하고 있는 분야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관심있는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1. 나는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직종과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22. 내가 원하는 생활방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23. 대학원이나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24. 취업면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들을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5. 처음 선택한 진로나 분야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전공이나 진로의 대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